

| | | | | |
|---|--|---|-------|--|
| 제 목 | 국 문 | 돌연사의 역학적 특성: 산재보상자료를 중심으로 | | |
| | 영 문 |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dden death: using records for workmen's compensation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박정선, 백도명, 이경용, 최정근, 이관형, 이기범, 문영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 |
| | 영 문 | Jung Sun Park, Domyung Paek, Kyung Yong Rhee, Jung Keun Choi, Kwan Hyeong Yi, Ki Beom Lee, Young Hahn Moon <i>Industrial Health Research Institute, KISCO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i> | | |
| 분 야 | 역 학 | 발 표 자 | 박 정 선 | |
| 발표 형식 | 포 스텐 | 발표 시간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5 년 12 월 | | | |
| <p>1. 연구 목적</p> <p>과로로 인한 사망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로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정확한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로사는 사회적인 개념이며, 의학적으로는 돌연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따라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보상, 신청된 사례들을 이용하여 돌연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돌연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였으며, 특히 돌연사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각 사례들의 이차 자료를 대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원을 파악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기록 조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망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전수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정 기간에 신청,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자료). 이상의 사례들 중에서 1994년도에 사망한 사례들을 다시 추출하여 발병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례를 최종 돌연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p> <p>조사 자료의 수집은 1995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산재보상 신청 자료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보관 중인 모든 이차 자료를 검토하고 미리 준비된 조사표에 옮기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조사 요원으로 산업보건을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였다. 조사 요원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자료 검토 방법과 절차 및 지침 등을 작성하여 훈련하였다. 본 연구는 돌연사의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조사된 항목별 특성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에 한정하였다. 단 돌연사의 사망 원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망 원인별 분포를 파악하였다.</p> | | | | |

3. 연구결과

1994년에 산재보상(유족 급여)을 위해 접수된 사망 사례 550건중 1992년도 사망 사례는 4건, 1993년도 사망 사례는 43건 1994년도 사망 사례는 503건이었다. 이 중에서 1994년도 사망 사례중 발병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돌연사의 사례는 291건이었다. 돌연사의 사례로 일차 간주된 291건의 발병후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분포를 보면 10분 이내 사망 사례는 135건으로 46%, 10분 이상 1시간 이내의 사례가 49건으로 17%,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사례가 107건이었다. 발병후 24시간 이후에 사망한 사례 중에는 1주일 이내에 사망한 사례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돌연사로 분류된 291건에 대한 사망 원인 분포를 보면 기록이 없는 사례가 많아 176건으로 61%에 이르고 있고, 뇌질환이 7%, 심질환이 21% 기타 질환이 7%로서 나타났다(선행 사인을 기준으로 함). 정리된 돌연사 사례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271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50대가 101건으로 35%, 다음이 40대 91건(31%), 30대 48건(17%), 60대 33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226건(78%), 미혼과 사별이나 이혼의 사례는 25건(9%)이었다. 직업적 특성으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42%로 121건이었으며, 1년에서 4년까지의 사례는 23%인 66건이었으나 다시 4년 이상에서 104건(36%)으로 증가하였다.

돌연사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대분류) 제조업(34%, 98건), 건설업(21%, 60건), 운수창고통신업(17%, 4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 분포에서는 생산운수장비 부분이 54%인 1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25%인 73건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무관리직 종사자는 16%인 46건으로 세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시간의 분포를 계절별 하루의 시간대별로 파악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망 장소의 분포를 사업장 밖과 사업장 안으로 구별한 결과 사업장 안이 66%였다. 각 사례들의 과거 질병력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은 21%, 당뇨는 3%, 간장 질환은 8%, 위장 질환은 3% 등으로 과거 질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는 사례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돌연사의 업무상 스트레스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원으로 생각되는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발병전 신체 과부하가 주어진 경우가 15%였으며, 24시간 이내에 업무상 돌발 사태로 긴장을 유발한 경우는 6%, 3달 이내에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경우가 22%였다. 업무 내용의 변화나 업무의 권한과 의무의 변화 등이 있었던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4. 고찰

돌연사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본 조사의 제한점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사망 원인 분석자료와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본 조사결과 뇌질환에 비해 심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입사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돌연사의 제반 특성들은 그 자체로 사망과의 연관성을 확정할 수 없으며, 향후 대조군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관련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